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년 제3차 문화분과 회의록(3월)

| | | | | | | | | |
|-----------|---|-----|--------------------|-----|-----|-----|-------------------|----|
| 일시 | 2022. 3. 15.(화) 15:00~18:00 | | 기록 | 강동화 | | 확인 | 서정안, 김승영 | |
| 장소 | 대면(수원홍재복지타운 4층 세미나실) / 온라인 비대면(ZOOM) 병행 | | | | | | | |
| 참석자 | 총 16명 중 11명 참석 68.8% - 관 1/5, 민 10/11 | | | | | | | |
| | 분과장 | 김승영 |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 ○ | 분과장 | 서정안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 × |
| | 총무 | 박지혜 | SK청솔노인복지관 문화복지팀장 | ○ | 서기 | 강동화 | 능실종합사회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 ○ |
| | 위원 | 김가경 | 서호노인복지관 팀장 | ○ | 위원 | 박은정 |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팀장 | ○ |
| | 위원 | 김경이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팀장 | ○ | 위원 | 이경아 | 문화예술과 예술팀 주무관 | × |
| | 위원 | 김두욱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팀장 | ○ | 위원 | 안대선 | 관광과 관광정책팀 주무관 | 파견 |
| | 위원 | 김미경 |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 주무관 | ○ | 위원 | 장성임 | 문화예술과 인문학팀장 | × |
| | 위원 | 김성중 |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 × | 위원 | 정지영 | (사)수원YWCA 책임간사 | × |
| | 위원 | 김수정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지역3팀장 | ○ | 위원 | 최승철 | 팔달노인복지관 과장 | ○ |
| | 위원 | 목지은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팀장 | ○ | 담당 | 임복희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 | ○ |
| 회의주제 및 안건 | <p>1. 인사 및 공유사항</p> <p>2. 교육 진행 : 문화도시 수원 정책</p> <p>1) 문화도시 수원 교육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이선옥 센터장)</p> <p>2) 수원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례 최종보고서 (수원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조례 제개정 시민모임, 풍물굿패 삶터 이성호 터장)</p> <p>3. 차기회의 : 2022년 4월 19일(화) 오후 3시</p> | | | | | | | |
| 회의결과 | <p>1. 인사 및 공유사항</p> <p>1) 대면/비대면 교육 참여자 인사 및 교육 일정 소개</p> <p>2. 교육</p> <p>1) 문화도시 수원 교육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이선옥 센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도시로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진행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 수원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동·서수원 개발격차에 따른 생활권별 문화적 불균형과 원도심 쇠퇴에 따른 지역갈등과 문화안정망 보장, 후속세대를 위한 생태·환경을 필요성으로 제시함. 또한, 수원시는 광역 수준의 대형도시로서 지역별 | | | | | | | |

| | |
|--|--|
| | <p>생활권마다의 특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이기에 문화도시로서의 추진 방향도 다양성을 갖춘 문화를 지향함. 이에 수원시는 시민-도시-문화의 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도시 모델로서의 문화도시를 이루고자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선정 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준비 기간이 있었음. 해당 기간 중에도 시민참여와 로컬브랜드, 수원나우어스 활동, 문화도시 조례개정 등 문화도시 선정 시 이어지는 활동으로 지속 운영되어왔음. - 문화도시 수원시는 사람중심의 인문실천으로 시민, 마을, 지역, 생태를 중심 가치로 삼고자 함. 인문실천을 통해 시민문화력을 강화하는 시민주도와 참여의 사업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 문화 거점공간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음. 나아가 지역자원의 문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인문적 영역에서의 활동과 환경 기반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함. - 인문학을 중심으로 공통체 삶에서 필요한 인문적 가치를 지향하며 이를 시민주도적 실천으로 풀어내고자 함. 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인문적 관점을 통해 원도심의 화성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는 문화활동을 운영하고자 함. - 이후 정책적·시민주도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을 가지고자 하며 특히 시민주도의 지속가능성은 지역 특생의 로컬브랜드의 생산-유통-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음. - 수원시는 3차 법정문화도시로 다른 문화도시 지정도시와 다르급 022년 문화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계획(안) 확인 후 추가 논의사항 소통 - 간담회 진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내용을 사전에 정해놓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내용에서는 간담회에 대한 진행 여부만 기록되어있지 내용이 제시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활동 운영을 통해 구성된 내용으로 간담회를 기획할 예정으로 현재에는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운영 형태도 간담회나 토론회 등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교육으로 학습된 내용과 시민 참여활동에서 제시된 수원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이해되었으면 하며 문화정책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교육과 학습, 역할논의와 제언, 간담회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됨. 단, 제언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됨. 또한, 여섯 가지 영역의 문화 영역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시민참여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짐. 이에 시민참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섯 가지 영역별 TF팀을 구성하여 관련한 기준을 구성하고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한 교육과 학습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 학습 진행 중 문화정책 또는 문화도시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
|--|--|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인원과 의견을 나눌 때 관련한 내용 전달 필요.

2) 수원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조례 제개정 과정 공유 (수원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조례 제개정 시민모임 이성호)

- 해당 문화예술조례 제개정 과정은 시민모임이 시의 법령과 정책을 찾아보고 확인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화예술인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조례와의 차이점으로 학습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이후 시민모임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여 반영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시민 차원에서 문화예술인이 직접 서로가 경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데 주요한 성과가 있음.
- 문화도시는 행정의 관점의 도시적 개념이 문화 향유와 경험의 차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인식이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만약 문화적 행사 등을 대표로 한 일회성 사업만 운영하게 되면 문화 향유에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는 형태가 됨. 이에 생활문화예술 차원에서의 참여들이 시도되어야 함. 여기서 생활문화예술이라 함은 전문가 입장에서의 예술의 시도와 향유가 아닌 시민 차원의 문화예술활동, 이른바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포함한 개념임. 특히 보장차원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생활반경에서 시민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영역, 민간영역뿐만아니라 공공영역과의 협동차원에서의 역할을 더 함께하도록 만드는 접점 만들기가 필요함. 이를 통해 문화도시 안에서 행정-예술인-지역사회기관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
- 문화예술을 흔히 생계로서 예술을 하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취미 차원의 문화예술의 향유도 생활양식으로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바는 시민이 실제로 경험하고 얻을 수 있는 일상적 시간에 문화적 향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임.
- 복지관 등 지역사회기관에서 이와 같은 시민의 일상의 문화 향유가 유의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라 알리고 인식하게 참여가 필요한 상황.
- 장애인복지관 등 특정 계층의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그들이 가진 환경적 어려움 안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화도시가 자리를 잡는데 지역사회 기관으로서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인과 지역주민, 장애인의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이외에도 행정 차원에서 생활예술의 확대로 전문예술인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문화적 활동이 삶의 저변에 자연스럽게 위치할 필요가 있음.

3. 차기일정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수원시 문화재정과 정책 교육

사진

